

구례군 경사났네~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3곳 선정



300년 고택 '쌍산재'



'천개의 향나무 숲'



'반야원'

산림청 선정...지리산 배경 '쌍산재'·'천개의 향나무 숲'·'반야원' 전통미·예술성·주변과 조화 높이 평가...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300년 고택 '쌍산재', 1,000그루의 향나무 '천개의 향나무 숲', 70년된 플라타너스 '반야원'. 구례에 있는 민간정원 3곳이 최근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뽑혔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최한 이번 '민간정원 30선'은 민간정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와 정원분야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1차 서류평가로 45곳을 뽑은 후 전문가 현장 심사 및 대국민 온라인 투표(참여인원 1만3,356명)의 2차 평가를 통해 지난달 24일 최종 30곳을 선정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구례군은 지역 내 있는 민간정원 모두가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으며, 특히 3곳의 정원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예술적인 구성-주변 자연과의 환상적인 조화 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구례군은 최근 지리산 정원의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 등록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 모두 선정되고, 또한 지리산정원이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쌍산재' (전남도 민간정원 제5호) 구례군 마산면 장수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2,570㎡의 규모로 대나무와 동백나무가 대표적인 수종이다. 1년 중 5월과 8월 사이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며 연간 10만명이 다녀간다. 이 곳은 3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택과 전통정원이 어우러진 데다, 돌계단과 작은 연못 등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듯 비밀스러운 느낌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대나무·배롱나무·동백나무 등 교목

62종과 작약·모란 등 30여종의 정원식물이 있다. ▲'천개의 향나무 숲' (전남도 민간정원 제14호) 면적 1만8,547㎡ 규모로 구례군 광의면 천변길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에 들어서면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목서와 1,000그루의 향나무길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와 함께 기발한 아이디어로 구성된 놀보정원과 향기정원의 매력도 신선하다. 9월과 10월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꼽히며, 연간 2만5,000여명이 숲길을 찾아온다. 수많은 향나무가 뿔어있는 터널길과 편안한 산책길, 그리고 정원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유럽의 정원을 연상케 한다. 향나무·목서·섬잣나무 등 교목 31종과 수국·수선화·작약·구절초 등 19종의 정원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반야원' (전남도 민간정원 제21호) 구례군 광의면 한국통신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 곳 중 가장 넓은 규모인 2만 84㎡에 달한다. 지리산의 반야봉의 '반야'의 뜻을 되새기고자 지리산 자락 아래 조성됐으며, 가장 아름다운 때는 4~6월 중이다. 플라타너스와 소나무가 대표적인 수종으로 1년 365일 개방하며 연 12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 명소로 꼽힌다. 70년 된 플라타너스는 반야원의 상징적인 나무이며, 지리산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이뤄놓은 연못은 맑은 빛을 과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경 식물정원과 곳곳의 수석·소나무 등은 주변의 자연을 배경으로 멋진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플라타너스·매화나무·소나무 등 교목 44종과 벚꽃·벚나무·수국·붓꽃 등 11종의 정원식물이 있다.

보성군,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이월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다음달까지 일제 정리 기간

보성군이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세금 분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7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대책을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신속

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형빈 보성군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 김세기 선생 정신 계승...20년째 이웃돕기 사업

우석기념사업회, 쌀 600포 고흥동·대서면 등 6곳에 전달

고(故) 김세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우석 기념사업회'가 올해로 20년째 이웃돕기 사업을 실천해 따뜻한 마음을 더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4일 고흥군 동강면 소재 죽암농장(회장 김종욱)강당에서 조대정 부군수를 비롯한 김종욱 죽암농장회장과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올해는 죽암농장에서 생산된 쌀(20kg) 600포대 3300만원 상당을 죽암농장이 위치한 동강면을 비롯한 대서, 남양, 점암, 영남, 과역면 등 6개면의 400명의 불우이웃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각 1포씩 전달했다. 박기창 이사장은 "고인께서 생전에 강조하신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쌀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지역주민들 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대정 고흥 부군수는 "우석 김세기 선생은 대



규모 간척지를 일구며 고흥농업 발전에 큰기여를 하신 분으로 고인의 뜻을 기리며 불우이웃을 돕는 기념사업회의 활동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죽암농장은 동강면과 남양면에 걸친 죽암간척지 150(ha)에서 벼와 조식료를 재배하며, 자

체 브랜드인 '금세기 쌀'을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농장내에 자체 퇴비공장을 갖추어 자연순환 농법을 실천중이며 전남4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금세기 정원'을 통해 농업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형 농장을 지향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군, 공연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비장애인 합동 음악회...강연 벗어나 문화예술 접목 눈길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공무원 교육이 시행돼 눈길을 끌었다. <사진> 구례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의실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혼성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공연이 있었다. 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은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정규대 밀알문화예술센터장의 강의는 장애인 예술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조명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포스코 취업아카데미 8명 취업 성공

지자체-대기업 일자리 창출 교육...기초·현장실무 33명 수료



광양시는 지난 1일 제5기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지역인재의 포스코 취업을 위해 지난 2019년 광양시와 포스코가 업무협약을 맺고 5년간 이어온 지자체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번 5기 아카데미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회사상식·직무기초지식·현장실무

등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총 수료자 33명 중 8명은 포스코 그룹사 등에 조기 취업했으며, 15명은 포스코 공채 인적성 검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포스코 그룹사 관계자와 교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4개월간 노력한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해외 마이스 산업 유치 총력

중화권 박람회 참가...대만 여행사 7곳과 공동마케팅 협약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람관에서 개최된 중화권 박람회 '2024 타이베이 국제여권'에 참가하여 해외 마이스(MICE) 산업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날 시는 여수의 마이스(MICE) 기반 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 내용 등을 홍보하고 대만의 주요 여행사인 可樂(콜라), 雄獅(라이언), 百威(백위), 山富

(산복), 大都會(대도회), 巨龍(거룡), KKday(케이케이데이) 등 7개 업체와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만 마이스(MICE) 바이어 대상 여수 마이스(MICE)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기반 시설 수시 홍보 ▲여수 마이스(MICE) 행사 유치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초청 팸투어 등 추

진 ▲양 도시 연계 마이스(MICE)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이후 시는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 지사를 방문했으며, 지사장은 여수시 관광 및 마이스(MICE)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 야간관광의 대표도시이자 마이스(MICE) 거점 도시인 여수에 해외 관계자들의 관심이 줄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화권과 지속적인 소통망을 형성해 마이스(MICE) 행사 유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